

사라진 일용직 일자리는 어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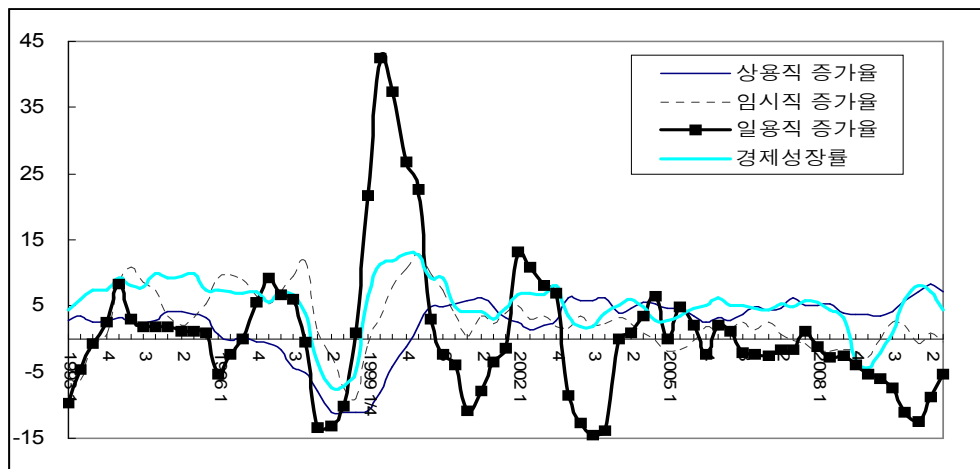
김복순*

I. 서론

2010년 고용사정은 9월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311천개가 증가하여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구조를 보면 경기회복기에 보이는 상식적인 고용지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최근 겪은 고용악화는 1998년 IMF 시기와 2003년 카드대란 시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이다.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실물경기의 침체를 초래하였고, 결국 고용악화로까지 이어져 2009년 일자리가 전년대비 72천개가 사라졌다. 그러나 2010년 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노동시장도 활기를 되찾으면서 제조업과 상용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속내를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경기회복기에서 확인된 고용 패턴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세는 주목할 만하다. 2010년 9월 현재까지 일용직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178천개가 사라졌다. 이러한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를 일각에서는 외국인력의 국내고용 대체문제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연 사라진 일용직 일자리가 어느 정도이며,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라진 일용직 일자리 규모와 주도 산업

우리 노동시장에서 일용직 일자리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근로자로서 고용사정이 가장 열악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일자리는 경기변동에 상당히 탄력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용직 일자리는 경기역행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실물경기 침체는 심각한 고용악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차츰 경기가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일용직 일자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9월 현재까지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311천개 증가하였다. 최근 일자리 증가세는 상용직 중심의 임금근로자가 주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178천개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기에 접어든 2010년에도 여전히 일용직 일자리의 절대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이 71.0%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 일용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과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용직 일자리 감소세는 최근 2008년 1/4분기부터 지속되어온 추세이며, 2010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43천개가 사라진 것을 정점으로 감소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해 상용직 일자리는 2010년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 696천개가 창출되어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고학력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용직 중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는 2010년 9월 현재 8.5%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 동기간 7.0%에 비해 1.5%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30대 연령층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최근 일용직 일자리 감소세가 초졸 이하의 저학력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표 1> 경제성장률과 종사상 지위별 고용변동 및 취업자 대비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7. 1-9	2008. 1-9	2009. 1-9	2010. 1-9
경제성장률	9.7	8.9	-5.7	10.7	8.8	4.0	7.2	2.8	4.6	4.0	5.2	5.1	2.3	0.2	4.9	4.4	-1.8	6.5
<고용변동>																		
취업자 전체	564	566	-1276	353	865	416	597	-30	418	299	295	282	144	-71	283	175	-94	311
임금근로	749	420	-1108	367	697	299	522	221	492	291	366	419	236	248	422	269	201	512
상용직	559	274	-748	-399	260	319	148	407	356	292	287	416	387	383	413	410	339	696
임시직	191	123	-194	213	353	118	160	118	78	-26	87	29	-93	22	50	-93	-6	-7
일용직	0	23	-166	554	83	-139	215	-303	58	24	-8	-26	-57	-158	-42	-48	-132	-178
비임금근로	-185	145	-169	-13	167	118	75	-252	-73	8	-71	-137	-92	-319	-139	-95	-295	-200
고용주	123	57	-247	-41	107	96	63	12	50	-15	-32	-70	-35	-10	-75	-28	-26	-5
자영자	-214	136	-37	126	56	90	77	-161	18	77	-5	-16	-44	-249	-10	-46	-227	-105
무급가족	-93	-48	117	-100	6	-68	-66	-103	-141	-54	-33	-53	-12	-60	-54	-21	-42	-91
<취업자 대비 비중>																		
임금근로	62.7	63.2	61.7	62.4	63.1	63.3	64.0	65.1	66.0	66.4	67.2	68.2	68.7	70.0	68.0	68.7	69.8	71.0
상용직	34.8	36.7	32.8	30.2	30.2	31.1	31.0	32.8	33.8	34.6	35.4	36.8	38.2	39.9	36.6	38.1	39.7	42.1
임시직	18.0	17.6	20.3	21.0	21.8	21.9	22.0	22.6	22.5	22.1	22.2	22.1	21.5	21.7	22.1	21.6	21.6	21.3
일용직	9.9	8.8	8.6	11.2	11.1	10.3	11.0	9.6	9.7	9.7	9.5	9.3	9.0	8.4	9.3	9.0	8.5	7.6
비임금근로	37.3	36.8	38.3	37.6	36.8	36.7	36.0	34.9	34.0	33.6	32.8	31.8	31.3	30.0	32.0	31.3	30.2	29.0
고용주	6.9	7.4	7.0	6.7	6.9	7.2	7.3	7.4	7.4	7.3	7.0	6.7	6.5	6.5	6.7	6.5	6.4	6.3
자영자	19.8	19.8	21.2	21.4	20.8	20.8	20.6	19.9	19.6	19.7	19.5	19.1	18.8	17.8	19.2	18.9	18.0	17.3
무급가족	10.6	9.5	10.2	9.5	9.1	8.6	8.1	7.7	6.9	6.6	6.3	6.0	5.9	5.7	6.1	5.9	5.8	5.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일용직 근로자의 학력별 고용변동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고용변동						비 중					
	2007	2008	2009	2008. 1-9	2009. 1-9	2010. 1-9	2007	2008	2009	2008. 1-9	2009. 1-9	2010. 1-9
전 체	-26	-57	-158	-48	-132	-1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초졸 이하	-19	-39	-103	-43	-79	-91	44.4	43.7	42.0	43.2	42.1	41.2
고졸	-9	-22	-55	-10	-59	-79	48.5	48.8	49.9	49.5	49.8	50.3
대졸 이상	2	3	0	-5	5	-8	7.1	7.5	8.1	7.4	8.1	8.5
전문대졸	-0	-4	8	-3	10	-3	3.7	3.6	4.3	3.5	4.2	4.5
대졸 이상	2	8	-7	-8	-4	-5	3.4	3.9	3.8	3.8	3.9	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렇다면 최근 사라진 일용직 일자리는 주로 어디에서 주도하고 있는가? 최근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건설업(43천개), 도매 및 소매업(9천개), 숙박 및 음식점업(41천개), 제조업(30천개)에서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오히려 일용직 일자리가 60대 연령층의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9천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들어들면서 일자리 증가세로 전환한 제조업은 최근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조업 내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0년 들어 8월에 전년동월대비 247천 명이나 증가하는 등 9월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150천 명이 증가한 반면, 일용직의 감소세는 하반기 들어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동기간 동안 3만개의 일자리가 사

〈표 3〉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별 고용변동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고용변동						비 중					
	2007	2008	2009	2008 1-9	2009 1-9	2010 1-9	2007	2008	2009	2008 1-9	2009 1-9	2010 1-9
전 체	-26	-57	-158	-48	-132	-1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3	-5	3	-6	7	-7	5.4	5.3	5.9	5.1	5.8	6.0
광업	1	-0	-0	-0	-0	-0	0.1	0.0	0.0	0.0	0.0	0.0
전기가스 등	0	-0	-0	-0	-0	1	0.0	0.0	0.0	0.0	0.0	0.1
건설업	16	-43	-40	-48	-31	-43	33.1	32.0	32.5	32.0	32.5	33.4
제조업	-13	-9	-33	-8	-28	-30	12.1	12.0	11.3	11.9	11.3	10.8
서비스업	-27	1	-87	15	-79	-99	49.2	50.6	50.3	50.9	50.3	49.7
도매 및 소매업	4	2	-10	8	-12	-9	11.3	11.7	12.1	11.9	12.0	12.7
운수업	0	3	-11	6	-10	-11	2.5	2.7	2.3	2.7	2.4	2.0
숙박 및 음식점업	-28	9	-18	15	-12	-41	15.3	16.1	16.5	16.2	16.6	16.0
출판·영상·방송 등	-6	3	-3	3	-5	1	0.6	0.8	0.7	0.8	0.6	0.7
금융 및 보험업	0	1	-2	1	-2	1	0.3	0.3	0.2	0.3	0.2	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5	6	-7	7	-5	0.6	0.4	0.7	0.3	0.7	0.5
전문·과학 등	-1	-4	-1	-5	-1	0	0.7	0.5	0.5	0.6	0.6	0.6
사업시설관리 등	19	-6	-43	-4	-45	9	5.7	5.6	3.8	5.6	3.7	4.6
공공행정 등	-13	1	-9	-2	-4	-23	1.9	1.9	1.7	1.9	1.8	0.7
교육서비스업	2	2	-2	2	-2	-5	0.9	1.1	1.1	1.1	1.1	0.9
보건업 등	-2	-1	8	-2	9	1	0.7	0.7	1.1	0.6	1.1	1.3
예술·스포츠 등	-8	4	-7	5	-7	-4	2.1	2.4	2.2	2.4	2.3	2.3
협회 및 단체 등	-3	7	3	7	5	-7	3.2	3.6	4.1	3.5	4.0	4.0
가구내 고용활동 등	13	-15	2	-13	0	-4	3.4	2.8	3.1	2.9	3.1	3.2
국제 및 외국기관	-	0	-0	0	-0	-	0.0	0.0	0.0	0.0	0.0	0.0
하수·폐기물처리 등	-1	0	0	0	0	-0	0.1	0.1	0.1	0.1	0.1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의 사라진 일용직 일자리는 모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로 30~40대 남성근로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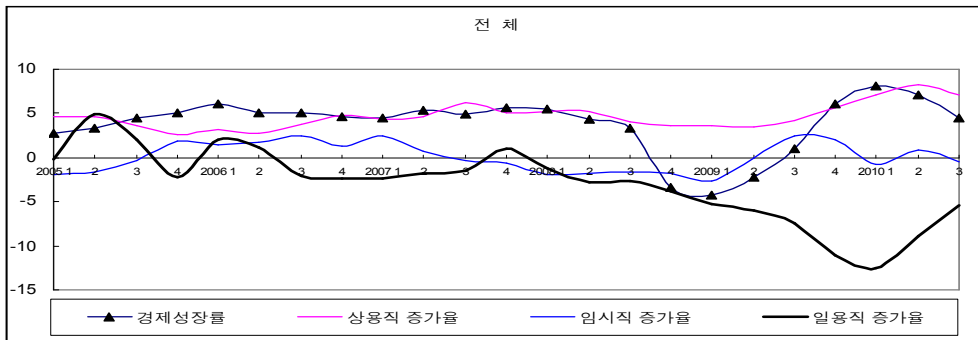
취업자 대비 일용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건설업 또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30~40대 남성근로자를 중심으로, 대표적 내수 서비스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의 여성 판매종사자와 여성 서비스종사자를 중심으로 해당 산업 내 일용직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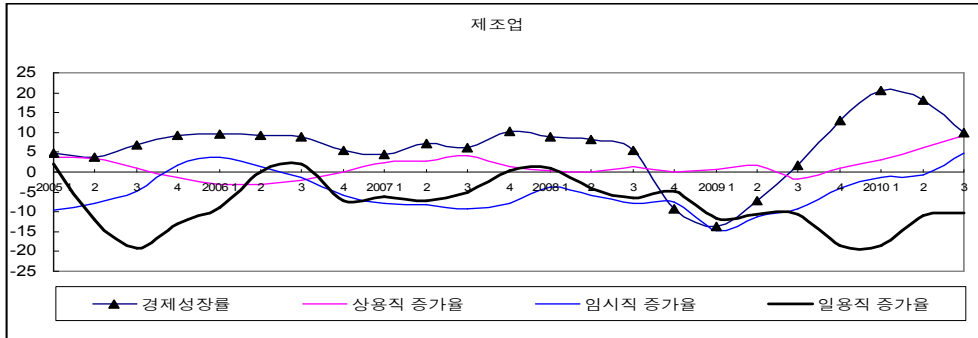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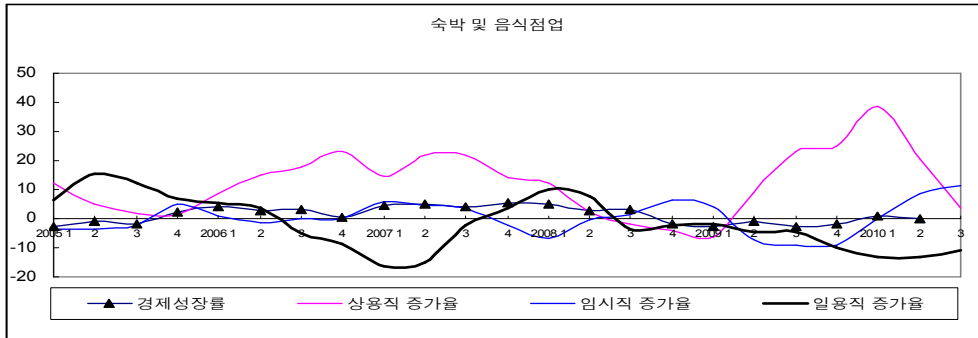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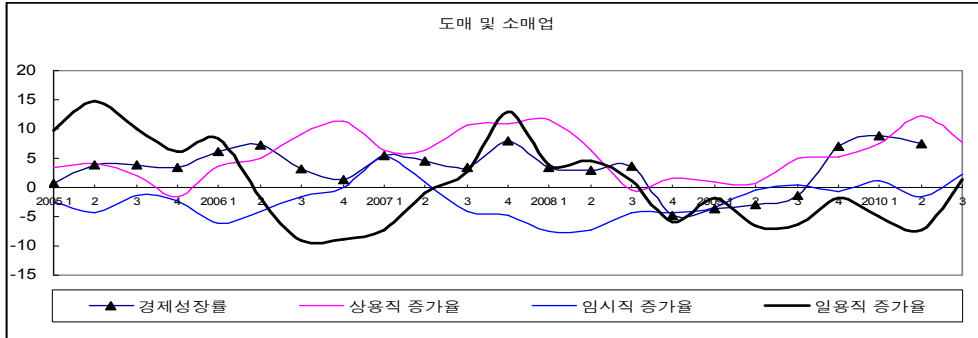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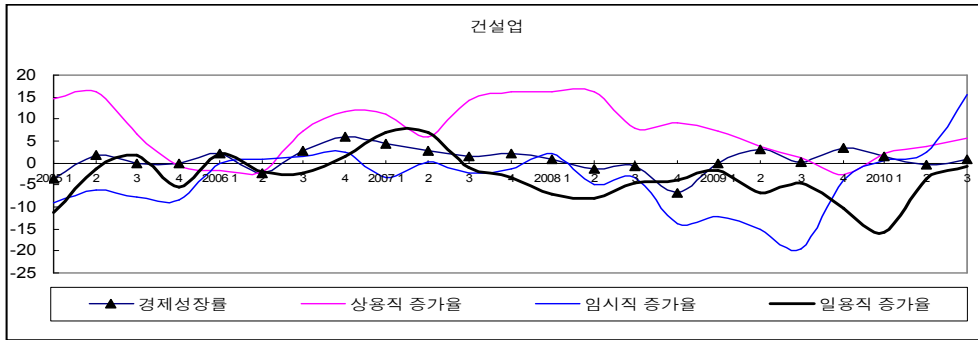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전반적인 일용직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문에서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단순노무직 중심의 일용직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일용직 일자리 감소세 주도 산업에서의 노동이동

[그림 2]는 최근 일용직 일자리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산업의 경제성장률과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009년 기저효과로 상반기에 비해 다소 저조하고 산업별 편차가 있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세 또한 꾸준하다. 반면 일용직 일자리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최근 일용직 일자리 감소를 주도하는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상용직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용직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해당 산업의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림 2] 일용직 일자리 감소를 주도한 주요 산업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다음 <표 4>는 최근 일용직 일자리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산업의 일용직 근로자의 노동이동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일용직 전체를 보면 일용직으로의 입직과 이직이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입직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여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가 현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일용직의 다른 일자리로의 취업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들어 일용직 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르는 비중(65.5%)이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42.6%)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용직 근로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비중의 변화는 주로 40~50대 생산직중의 남성근로자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을 보면 2010년 9월까지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파악된 최근 일용직 일자리 감소세를 주도하는 주요 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외국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산업에서의 일용직 일자리의 노동이동을 보면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모두 일용직 근로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비중 변화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다른 일자리로의 취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9월까지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종사했었던 근로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40~50대 연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0대 연령층의 남성근로자와 50대 연령층의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세를 주도하는 주요 산업에서의 (일용직 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로의 노동이동을 한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비중 변화는 <부표 1>을 참조하길 바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0년 경기회복기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의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으로 인한 고용형태의 변화나 해당 산업 내 노동수요의 변화 외에 외국인력의 영향 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동안 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가능성에 대해서는 몇 차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용직 감소의 원인으로 외국인력이 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2010년 들어 외국인력의 증가가 매우 적었음을 고려할 때 일용직 감소폭의 확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4> 일용직 근로자의 노동이동(유출입 분석)

(단위: 천 명, %)

	일용직수	순입직	총입직	총이직	규모			비중		
					실업	비경활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전 체>										
2007	2,132	-34	4,381	4,414	646	2,469	1,300	14.6	55.9	29.4
2008	2,099	3	4,390	4,386	548	2,253	1,584	12.5	51.4	36.1
2009	2,102	-133	4,589	4,722	555	2,178	1,989	11.8	46.1	42.1
2010	1,969	-244	3,978	4,222	656	2,440	1,125	15.5	57.8	26.7
2007. 1-9	2,142	-10	4,482	4,492	586	2,307	1,599	13.0	51.4	35.6
2008. 1-9	2,132	-68	4,549	4,617	532	2,207	1,879	11.5	47.8	40.7
2009. 1-9	2,064	-134	4,199	4,333	671	2,320	1,341	15.5	53.6	31.0
2010. 1-9	1,931	-151	3,640	3,791	556	2,484	750	14.7	65.5	19.8
<건설업>										
2007	609	52	1,519	1,468	278	544	645	18.9	37.1	44.0
2008	660	-39	1,520	1,559	247	474	838	15.8	30.4	53.8
2009	621	-25	1,631	1,656	246	455	955	14.8	27.5	57.7
2010	596	-101	1,370	1,471	294	613	564	20.0	41.7	38.3
2007. 1-9	724	-23	1,586	1,609	261	492	857	16.2	30.6	53.2
2008. 1-9	701	-34	1,601	1,635	232	456	947	14.2	27.9	57.9
2009. 1-9	668	-3	1,435	1,437	300	549	589	20.9	38.2	41.0
2010. 1-9	665	-48	1,335	1,383	227	621	534	16.4	44.9	38.6
<도매 및 소매업>										
2007	289	-37	471	508	56	318	134	11.0	62.5	26.5
2008	253	7	485	478	55	340	83	11.6	71.1	17.3
2009	260	16	471	455	49	281	124	10.8	61.9	27.3
2010	276	-18	462	480	64	340	77	13.2	70.7	16.1
2007. 1-9	224	7	482	475	57	336	82	12.0	70.7	17.4
2008. 1-9	231	14	481	468	45	304	119	9.6	65.0	25.4
2009. 1-9	245	-30	446	476	72	325	79	15.2	68.2	16.6
2010. 1-9	215	19	428	409	44	327	38	10.7	79.9	9.4
<숙박 및 음식점업>										
2007	389	-47	734	782	70	489	223	9.0	62.5	28.5
2008	342	38	695	657	66	436	155	10.1	66.4	23.5
2009	380	-22	743	765	71	472	222	9.2	61.7	29.0
2010	358	-48	649	697	87	455	155	12.4	65.3	22.3
2007. 1-9	316	17	706	689	63	457	169	9.1	66.3	24.6
2008. 1-9	333	-21	725	746	68	469	208	9.2	62.9	27.9
2009. 1-9	311	-12	703	715	92	449	175	12.8	62.7	24.5
2010. 1-9	299	-44	581	626	77	466	83	12.3	74.4	13.3
<제조업>										
2007	298	-15	497	513	58	295	160	11.2	57.5	31.3
2008	283	10	466	456	56	227	174	12.2	49.7	38.1
2009	293	-35	474	509	55	239	215	10.8	47.0	42.3
2010	258	-45	424	468	67	244	158	14.2	52.1	33.7
2007. 1-9	268	-8	487	496	53	260	183	10.7	52.4	37.0
2008. 1-9	259	-15	467	482	55	228	199	11.5	47.3	41.3
2009. 1-9	245	-34	455	488	71	237	180	14.6	48.6	36.8
2010. 1-9	211	-17	391	409	55	259	95	13.4	63.4	2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5> (일용직 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이동한 일용직 근로자 성별·연령별 비중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07. 1-9	2008. 1-9	2009. 1-9	2010. 1-9
전체	20세 미만	15.2	14.6	13.3	15.1	14.3	13.6	14.3
	20대	24.7	25.5	25.1	24.5	24.9	24.5	23.6
	30대	11.9	11.4	10.3	12.1	11.8	10.3	10.1
	40대	14.5	14.8	16.3	14.8	14.8	16.2	16.5
	50대	15.2	14.8	16.2	15.2	15.0	16.3	17.2
	60세 이상	18.5	18.8	18.8	18.4	19.3	19.0	18.3
남성	20세 미만	18.0	15.8	13.3	17.6	15.7	13.9	14.6
	20대	31.5	32.5	32.0	31.5	31.9	31.0	30.1
	30대	7.5	8.8	8.4	7.5	9.2	8.3	8.2
	40대	11.2	11.7	13.6	11.6	11.6	13.8	14.3
	50대	15.6	15.1	16.9	15.6	15.3	17.1	16.2
	60세 이상	16.1	16.1	15.9	16.2	16.2	16.0	16.6
여성	20세 미만	13.2	13.7	13.3	13.2	13.3	13.5	14.0
	20대	19.8	20.3	19.9	19.4	19.6	19.6	18.8
	30대	15.0	13.4	11.7	15.5	13.6	11.9	11.5
	40대	16.9	17.2	18.4	17.1	17.2	18.0	18.1
	50대	15.0	14.5	15.7	14.9	14.8	15.7	18.0
	60세 이상	20.1	20.9	21.0	20.0	21.5	21.3	1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IV. 결론

일용직 일자리는 IMF 경제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시기를 겪으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회복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경제 또한 침체하면서 고용사정 악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2010년 들어서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여건이 호전되면서 2010년 9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311천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이는 전적으로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일용직 일자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일용직 일자리 감소는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의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감량경영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경기회복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과연 사라진 일용직 일자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일용직 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비중이 일용직보다 더 나은 일자리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하는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일용직 일자리 부진을 주도하는 산업 대부분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일용직 일자리 감소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 그리고 외국 인력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에서 일용직은 가장 열악한 한계계층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일용직 일자리 감소가 저학력층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집단의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KLI**

<부표 1> (일용직 근로자 →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이동한 일용직 근로자 성별·연령별 비중 추이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06. 1-9	2007. 1-9	2008. 1-9	2009. 1-9	2010. 1-9	
건설업	남성	20세미만	2.1	4.1	1.8	0.7	2.2	3.7	1.7	0.6	1.2
		20대	16.3	11.7	9.0	9.1	15.9	12.6	9.0	8.1	11.0
		30대	12.1	10.7	13.6	10.3	12.8	10.6	13.8	10.3	11.1
		40대	21.7	21.3	21.5	25.5	21.8	22.1	21.2	26.1	25.1
		50대	27.5	31.4	31.3	31.3	27.2	30.2	32.0	31.6	29.1
		60세 이상	20.4	20.8	22.9	23.1	20.1	20.9	22.3	23.4	22.4
	여성	20세 미만	5.0	0.0	0.0	1.4	6.5	0.0	0.0	0.8	5.7
		20대	0.0	1.3	1.6	13.2	0.0	0.7	0.9	14.8	1.9
		30대	11.7	12.2	7.2	9.5	11.1	13.9	6.6	8.8	2.6
		40대	21.8	25.6	17.3	26.2	20.3	27.8	15.6	26.0	16.0
		50대	29.6	29.8	34.0	31.4	29.1	28.7	33.4	31.3	46.4
		60세 이상	31.8	31.1	40.0	18.3	33.0	28.9	43.5	18.2	27.4
도소매업	남성	20세 미만	37.0	29.8	27.5	21.8	37.9	29.8	29.1	24.1	25.6
		20대	42.2	46.0	52.2	57.3	41.7	47.3	50.9	55.5	47.7
		30대	6.9	7.1	3.6	6.7	6.8	7.2	4.1	6.6	5.9
		40대	3.5	4.3	4.4	4.6	3.6	3.7	3.6	4.3	4.3
		50대	3.6	1.4	1.9	2.9	3.4	1.2	1.7	3.0	2.7
		60세 이상	6.7	11.4	10.5	6.7	6.5	10.8	10.7	6.4	13.8
	여성	20세 미만	15.6	17.1	22.0	20.2	16.2	16.6	22.4	20.2	20.6
		20대	32.1	35.4	31.8	29.0	31.7	35.0	31.5	28.7	28.8
		30대	16.6	14.6	12.5	11.2	16.4	14.4	13.4	10.8	12.8
		40대	11.1	13.5	14.5	16.6	11.0	13.5	13.6	16.1	13.1
		50대	6.7	4.6	5.6	7.8	6.5	4.9	5.6	8.1	8.2
		60세 이상	17.8	14.7	13.7	15.2	18.2	15.7	13.5	16.3	16.4
숙박 및 음식점업	남성	20세 미만	44.4	53.1	46.1	44.3	43.8	52.8	46.7	44.9	44.6
		20대	50.0	42.4	48.3	49.5	51.1	41.7	48.3	48.8	44.9
		30대	1.0	1.1	2.0	3.0	1.0	1.4	1.9	3.1	4.7
		40대	2.5	0.2	0.5	1.2	2.9	0.3	0.5	1.1	2.8
		50대	1.8	3.0	2.4	1.0	0.8	3.5	2.3	1.2	1.3
		60세 이상	0.3	0.2	0.7	1.1	0.4	0.2	0.3	1.0	1.8
	여성	20세 미만	24.4	27.2	25.9	24.1	23.8	28.0	25.2	24.4	22.8
		20대	26.3	22.3	27.2	22.7	26.6	21.6	26.9	22.4	23.9
		30대	9.6	9.2	8.8	7.4	10.0	9.2	8.9	7.7	7.7
		40대	18.9	19.4	15.7	21.0	18.6	19.8	16.2	20.8	17.7
		50대	16.2	14.5	14.9	17.4	16.8	14.6	14.9	16.9	20.3
		60세 이상	4.5	7.3	7.6	7.4	4.2	6.8	8.0	7.8	7.6
제조업	남성	20세 미만	15.6	12.5	15.8	6.7	17.3	13.5	16.2	4.6	14.3
		20대	47.6	41.4	33.1	44.3	43.3	42.4	31.5	45.4	37.5
		30대	3.6	8.0	15.5	6.3	3.9	4.9	16.8	6.6	6.8
		40대	11.0	6.5	13.0	15.4	12.0	5.5	12.0	15.0	16.0
		50대	8.4	8.7	8.8	9.7	10.6	10.1	8.8	9.8	16.6
		60세 이상	13.9	22.8	13.8	17.6	12.9	23.5	14.7	18.5	8.9
	여성	20세 미만	4.8	3.6	2.6	5.2	4.3	3.4	2.4	4.8	7.0
		20대	8.7	6.9	10.4	11.1	9.0	6.9	9.5	10.1	13.2
		30대	32.7	34.9	28.9	26.0	32.5	35.3	28.4	26.7	21.4
		40대	27.9	18.0	24.0	24.9	28.8	17.4	24.9	23.8	31.2
		50대	10.4	18.8	15.7	16.1	10.1	19.0	15.5	17.9	13.4
		60세 이상	15.5	17.8	18.5	16.7	15.3	18.0	19.2	16.8	13.8